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0. 여호와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꽃샘추위가 남아 있다 하나 계절은 어김없이 봄의 초입입니다. 부드러워진 흙덩이는 생명을 품고 있고, 나무 줄기에는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도 낡은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해 부끄러웠던 말과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사랑과 인정의 다리를 놓게 하시고, 막힌 곳은 뚫어 통하게 하는 하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루한 일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 곁에 머무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벰전5:6-7 인도자

♠ 교 독 문 13. 시편34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답송 찬양대

찬 송 32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다함께

성경봉독 마10:34-39 인도자

출3:1-5 이증자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주님께 합당한 사람 장영숙전도사

불타는 가시덤불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2.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울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1회 신앙강좌	성서의 평화(21)/김기석 목사
최철호 목사(희년마을교회 담임)	기도 : 유경순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김정길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용진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김용길 김훈동 배삼순 박효선 백혜숙

무엇에 신실한 사람인가?(2)

(지난 주에 이어)

첫째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인데 이것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치료함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당시에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감리교 신앙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직업 없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홀아비들, 버림받고 외로운 노인들, 갈 곳 없는 병자들, 알콜 중독자들, 장애인들, 불행한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맞아 돌보는 곳이었다. 특별히 흑인노예들은 감리교인들의 친구였다. 당시에 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과 작고 하찮은 실수에도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된 죄수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다 감리교인들이 맡았다.

둘째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선행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감리교 신도회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학교, 약국, 병원, 상담소, 직업소개소, 먹고 잠잘 수 있는 집이었다. 감리교 신도회와 속회는 바로 몸을 위한 선행과 영혼을 위한 선행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공동체였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돌보면서 전도하였다.” 초기 감리교 신도회에서 가장 유명한 표어는 “칭의, 성화, 일주일에 일 페니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enny a week”였다. 이 말은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생활로 경건하게 보이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일 페니로 남을 도우며 살자는 것이었다.

사랑의 실천은 감리교 교리의 핵심이요 감리교 구원론의 중심이다. 그들은 존 웨슬리가 가르친 대로 정통의 교리를 정통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감리교의 완전 성화의 교리는 완전한 사랑의 교리였으며, 완전 성화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그것이 감리교인들이 믿고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켜야 한다

당시 영국 국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감리교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공중예배와 기도회에

잘 참여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성만찬에 빠지는 일이 없이 거룩하게 받는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법과 규칙을 철저히 지키었다. 그들은 개인 기도와 가족기도회를 지키었다. 가족기도회는 감리교인들의 경건생활의 필수였다. 또한 영국 교회의 규칙대로 금식과 절식을 지키었다.

감리교인들은 교회의 예법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였다.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나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사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다. 감리교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등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사람들은 감리교인들을 보고 진정한 신사들이라고 불렀다.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 어떤 특정한 의사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그 의사들은 일정한 식이요법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을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명의들이었다고 한다. 이 이름이 18세기 영국에서 다시 사용된 것이다. 바로 웨슬리 형제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새로운 메도디스트라고 불렀던 것이다. 메도디스트들은 모든 악을 피하고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예법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인류의 죄악과 불행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도 초기 메도디스트들처럼 거룩한 삶의 규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신실한 사람들, 감리교인들이 되길 바란다.

(김진두 목사)

“설사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경우라도 결코 그들을 슬프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십시오. 그들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돌려보낼지라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대하십시오.” --존 웨슬리

한 잔의 기쁨 위에

-이수익

초봄에는

가만히 앉았어도 웬지 눈물겹다.

봄풀이 돋아나도 그렇고

강물이 풀려도 그렇다.

말없이 서러운 것들

제가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이 길목의 하루는

반가움에 온몸이 젖어

덩실덩실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 싶다.

바람같이 언덕을 달리고 싶다.

오오, 환생하는 것들 어리면 어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더욱 설레이게 하는

만남의 희열이여, 무한 축복이여.

초봄에는

가만히 앉았어도 웬지 눈물겹다.

한 잔의 기쁨 위에

또 한 잔의 슬픔처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용진 박효선
 백승민 유명숙 박병구 박영희 임 영 정경례 정복순 권채영 권미숙
 조관행 홍선희 이광용 형인순

월정헌금:

송임희 유증희 이재문 조항범 오현정 김미순 박병구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철수 이성운 최철수 광권희 오진훈 노순옥 장혜숙
 정복순 임 영 정경례 문금석 김춘려 문복순 한선희 이정은 김용진
 박병구 김영순 백승민 유명숙 백요현 임창선 무명1

생일감사헌금: 권미숙 정두리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정두리 김지호 김중수 이순정
 (누계- 30,80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홍순덕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광권희	광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진경	

